



Market Index / 26일

코스피지수 ▼	1686.24 -18.52	코스닥지수 ▲	516.61 +10.93	유가(WTI, 달러) ▲	24.49 +0.48	환율(원)	1USD 100¥	살매	1252.03 1133.62	팔매	1208.97 1094.64	살매	1369.44 181.54	팔매	1316.00 164.26
---------	-------------------	---------	------------------	---------------	----------------	-------	--------------	----	--------------------	----	--------------------	----	-------------------	----	-------------------

제주마늘농가 쌀생산조정제에 '역차별'

'제주마늘경쟁력강화협의회' 결성... 역차별 주목 남도중 차별화·대서종 재배전환 등 대응 모색

제주지역 마늘농가들이 소득안정을 위해 재배면적을 줄이며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의 '쌀생산조정제' 시행에 따라 되레 '역차별'을 받고 있다. 제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마늘가격 안정제에 따른 100ha에 대한 면적조절이 이뤄졌다.

26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제주산 마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2006년 3954ha·6만8000t에서 13년만인 지난해 2024ha·3만6000t으로 절반 수준이다. 반면 지난해 타지역의 재배면적은 2만7689ha에 생산량은 38만7671t에 이른다. 2015년 재배면적 2만638ha와 생산량 26만6272t에 견줘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제주마늘농가의 수익을 잠식하고 있다. 쌀 재

배를 대신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제주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농협, 농협, 농가 등이 공동으로 올해(가칭) 제주마늘경쟁력강화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결성해 문제점 해결에 적극 대응한다. 월 1회 이상 모여 파종에서부터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점을 협의하는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제주마늘산업을 지키기 위한 남도중 차별화 전략과 대서종으로의 품종 갱신 재배 등 크게 두가지 사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행정과 농협 차원의 마늘 수확기 산

지공판장 개장·운영 등을 통한 다각적인 농가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올해부터 마늘은 쌀생산조정제의 지원 제외작물에 포함됐지만 기존에 보조금을 받은 농가에서의 마늘재배는 지속되기 때문에 제주가 여러모로 열세에 있다"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남도중의 차별화와 함께 대서종으로의 품종 전환을 신중하게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대서종으로 품종을 변경한다면 파종·수확에 따른 기계화 작업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건조작업을 통한 보관기간 연장으로의 유통물량 조절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주 마늘재배농가에서의 다른 작물로 재배 품목을 바꾼다면 또다른 특정 작물의 과잉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 중인 마늘은 대서종과 남도중으로 크게 두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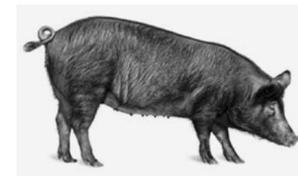
제주도는 김치 등에 사용하는 양념류에 많이 쓰는 남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서종이 남도중에 비해 기계화 작업은 물론 소비자 선호도, 단위면적당 소득 등이 뛰어나다. 3.3㎡당(1평 기준) 생산량의 경우, 대서종은 9~10kg인 반면 남도중은 4~5kg에 불과하다.

때문에 시장에 나올 때는 모두 깎마늘 형태로 유통되면서 품종에 대한 차별성 없다. 제주지역 재배농가가 다소 불리한 구조다. 생산단가에서도 밀린다. 제주 남도중의 kg당 생산단가가 2500원 수준으로 최소 3000원 정도 수매가격을 받아야 한다. 타지역의 대서종은 kg당 2000원을 받아도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쟁력 차원이나 기계화 작업이 용이한 대서종 비율이 예전 3:7에서 이제는 역전하며 국내 마늘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제주흑돼지 포유능력 관여 유전자 발견

농진청, 유두수 변화 확인 개량 적용해 사육 활용 기대



천연기념물 제550호 제주흑돼지.

제주흑돼지의 유두(젖꼭지) 수와 관련한 유전자가 확인돼 향후 개량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26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돼지의 유두 수는 포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형질 가운데 하나이며, 어미의 산자 수(한배 새끼 수)와 관련이 있어 양돈산업에서 선발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선행 연구로 제

주흑돼지와 랜드레이스 교배집단에서 유두 수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BRMS1L임을 확인했다.

BRMS1L은 돼지의 7번 염색체에 존재하며, 특정 영역의 염기가 G 또는 A인 단일염기다형성에 따라 유두 수가 변화했다. 이번 연구결과 제주흑돼지 개량에 BRMS1L 유전자형이 A/A형인 마커를 적용하면 유두 수를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주흑돼지의 유두 수를 늘리게 되면 포유능력이 개선돼 새끼를 더 건강하게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제주흑돼지는 2015년 3월 천연기념물 제550호로 지정돼 올해로 5주년을 맞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주흑돼지의 고기 맛에 관여하는 육질유전자(변이-MYH3)를 가진 '난죽맛돈'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제주 근해서 잡은 참다랑어 230t 총 8억4000만원에 위판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대량으로 잡힌 참다랑어가 26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위판됐다.

부산공동어시장은 이날 오전 230t에 달하는 참다랑어 경매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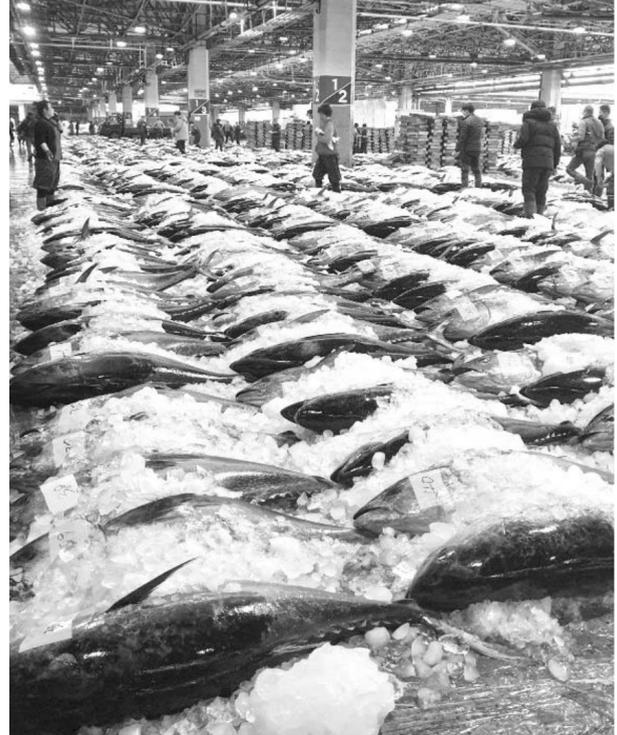
위판장을 가득 채운 참다랑어는 모두 1만1000여마리로 대형선망 어

선들이 전날 제주 근해에서 잡은 것으로 총 8억4000만원에 팔렸다.

이날 위판된 참다랑어 몸무게는 최대 70kg, 최소 10kg 등 다양한 크기였다. 20kg 이상도 4000마리가 넘었다.

어시장 관계자는 "예년 참다랑어 1kg은 1만원 정도였는데 이날 경매에서는 3000~4000원 수준이었다"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본 수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6일 부산공동어시장 위판장에 전날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잡힌 참다랑어가 가득하다. 어시장은 이날 1만1마리 이상이 위판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작년 제주 건설공사 계약액 3조7000억원

2016년 7조원으로 최고치 이후 매년 하락세 지속중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이뤄진 건설공사 계약액 규모가 점차 줄며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4조원대가 붕괴하고 여기에 인구 유입 감소 및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제주지역의 건설경기는 봄이 왔지만 냉랭한 분위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의 현장소재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3조7000억원이다. 분기별 1조원대 형성도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5년간 계약액은 2014년 3조1000억원, 2015년 4조3000억원, 2016년 7조원, 2017년 4조6000억원, 2018년 4조2000억원 등이다. 인구 유입이 한창이던 2016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본사 소재지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조2000억원, 2015년 3조원, 2016년 4조3000억원, 2017년 2조7000억원, 2018년 2조9000억원 등이다. 평균 분기별로 5000억~6000억원 수준이다.

전체 건설공사 계약액 가운데 제주지역의 업체가 수주한 비중은 2018년 69%에서 지난해 62%로 7%p 떨어졌다. 업체 수는 증가했으나 수주 공사분량은 줄며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 연간 계약액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22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제주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2020년 3월 4주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떨어지며 전국(0.11 상승)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전국 대부분이 오른 것과는 달리 전세가격도 -0.02%를 기록했다.

3월 현재 도내 매매가격 변동률 누계는 -0.43%로 지난해 전체 -0.55%에 근접했다. 전세가격 변동률도 -0.16%로 감소폭이 넓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지니' 소상공 판로 지원 특산물 쇼핑몰 연계 프로모션

제주은행이 제주경제통합진흥원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지역 기반 특화 여행 플랫폼 '제주지니'를 활용해 도내 소상공인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은행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입도 관광객이 크게 줄며 도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급락한 가운데 소비 진작 활성화를 위해 제주경제통합진흥원(특산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 제주지니 할인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제주지니의 모든 회원과 신한금융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Two-way 판매 프로세스'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지니 회원에게는 회원가입 10% 할인쿠폰과 주요 5개 카드사 10% 즉시 할인이 제공되고 있다.

앞서 제주은행은 지난해 추석과 설 명절에 임직원 대상 특가전을 시행해 단기간에 약 3억원의 매출을 시설했다.

한편 제주은행의 '제주지니'는 제주지역 기반 특화 여행 플랫폼으로 지역 영세사업자들에게 무료 플랫폼 제공 및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그랜드보청기

정지년 보청기 파격 대할인
보청기전 브랜드 50~60% 대할인!!

삼촌들 혼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습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캠페인

-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손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마스크 착용 생활화하기

그랜드보청기는 고객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방직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드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 소리와목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드스 제품
- 왜 와이드스 보청기 일까요?
-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와이드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설(가압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